

“서울아산병원의 지원 덕분에 4주 동안 선진 시스템을 익히다”

글 **한도영** 서울아산병원 아카데미운영팀



연수를 마치던 날, 필자는 한 시간 동안 UHN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발표했다. 발표회 뒤 UHN 직원들과 함께한 필자(가운데 V표시한 이).

지난 연말에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값진 경험을 했다. '2017년 민병철 연수기금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11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캐나다로 연수를 다녀온 것이다. 민병철 연수기금은 민병철 전 서울아산병원장께서 2010년 간호, 보건, 연구, 관리 직원들의 능력 계발을 위해 사재 20억 원을 기부하시자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님이 150억 원을 추가 출연하셔서 탄생한 기금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서울아산병원 직원들에게는 세계 우수 기관에서 연수받을 기회가 주어진다. 서울아산병원 직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큰 혜택인 것이다.

민병철 연수기금 장학생서 수여식에서 나는 감회가 새로웠다. 2002년, 내가 경기도 일산의 대진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 학교 체육관 단상 위에 올라가 '아산상 청소년효행상'을 받던 기억이

떠올랐다. 편찮으신 어머니를 보살피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려는 나의 고군분투를 딱히 여겨준 아산재단은 당시 내게 은인과도 같은 손길을 내밀었다. 나는 아산재단의 장학금 덕분에 고등학교에 이어 대학(한국외대 국제통상학과)까지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하고 무사히 졸업했다. 그때 아산장학금을 받지 못했더라면 아마도 학비를 벌기 위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느라 제때 졸업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번에 해외 연수생으로 선발된 것은 아산에서 받은 두 번째 큰 투자였다. 나는 연수기관으로 캐나다 최대의 의료기관인 UHN(University Health Network)을 택했고, 그곳에서 보낸 4주는 나를 일깨우는 좋은 시간이었다.

나는 국내 기업의 독일 지사에서 근무했던 아버지를 따라 독



필자가 지난 2월 7일 서울아산병원 유관 부서들을 대상으로 연수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위)과 UHN 홈페이지에 게재된 필자의 연수 스토리(옆).

일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 때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됐는데, 경제적인 문제로 계획했던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돌아온 아쉬운 기억이 있다. 교환학생으로 있는 동안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한 독일인 교수 덕에서 남은 한 학기를 보내는 혜택도 앞두었지만 한 학

기 만에 돌아와야 했던 게 얼마나 아쉬웠는지 모른다.

이번 연수는 그때의 한을 풀어주듯 서울아산병원에서 교육비는 물론 체류비까지 지원해 주었으니 그 고마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병원에서 나를 믿고 선발해준 만큼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많은 것을 배워 오는 것이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연수 몇 개월 전부터 연수기관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팀원들로부터 질문 리스트를 취합해서 연수 프로그램에 가능한 모든 요구사항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연수 내용을 조율하기 위해 UHN 연수 담당자와 몇 번의 화상통화와 20건이 넘는 메일 교신을 했고, 그 과정에서 UHN 리더들과 화상회의도 진행했다.

UHN은 해외 각 의료기관의 연수생들을 적극적으로 받아주었고, 몇 년 전부터는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생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했다. ‘교육리더십 및 조직개발’이라는 제목으로 완성된 프로그램에는 내 요구를 바탕으로 병원 혁신 프로젝트, 인사관리, 환자 경험, 조직문화 및 캠페인, 직원 복지 및 몰입도 등 교육이라는 키워드에 연결될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나는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의미 있고 알차게 보내고 싶어서 현지에서 추가적으로 일정을 잡아나갔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40개의 미팅, 10개의 세미나 및 교육, 10개의 투어와 3개의 강의가 쉴 틈을 주지 않고 기다렸다. 하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라는 생각에 매일 커피 두 잔 이상으로 피로를 달래며 준비해간 노트를 바쁘게 채웠고, 돌아와서 서울아산병원에 나눠 줄 생각에 뿌듯하고 설레었다.

UHN은 그들이 새로 개설한 교육 및 관리 분야 프로그램에 대한 나의 만족도와 피드백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내게 UHN에서 무엇을 배웠으며 어떻게 적용하고 싶은지 1시간 동안 발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수료식 날 나는 UHN에서 느낀 점을 그들의 ‘커뮤니케이션과 협업’ ‘학구적이고 창의적인 직원들’ ‘열려있고 정보를 공유하는 문화’ ‘효율적이고 융통적인 시스템’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해 발표했다. UHN 리더들과 직원들이 발표를 들으면서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을 보며 이 또한 나에게 좋은 과제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발표 초반에 서울아산병원과 아산재단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깊은 자부심과 함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서울아산병원에 오래도록 기여하겠다”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후에는 내가 속한 부서와 유관 부서들을 대상으로 연수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셔서 놀라웠고 많은 분들과 공유할 수 있어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UHN 홈페이지에는 나의 연수 스토리와 함께 프로그램이 성공적이었고 앞으로 서울아산병원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싶다는 뉴스가 게시됐다. 나 역시 UHN과의 인연이 나만이 아니라 연수를 희망하는 서울아산병원 직원들의 통로로 이어지도록 힘쓸 예정이다.

꿈과 희망, 그리고 그를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으나 환경이 따라주지 못해 날개를 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 역시 그중 한 명이었지만 인재 양성을 위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한 아산재단과 서울아산병원 덕분에 뜻을 펼칠 수 있었다. 숭고한 뜻을 품은 이러한 지원은, 지원받은 사람들의 보답으로 이어지며 세월이 지날수록 풍부한 결실을 맺게 된다.

아산재단과 서울아산병원에 오래도록 기여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나의 이번 여정을 응원해주고 지원해준 모든 분들께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아울러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역량을 개발해나가는 개척정신의 자양분이 되어주신 부모님, 그리고 연수기간 동안 든든히 나를 응원해준 남편과 딸에게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